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10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7,448	2.7	61,226	18.6	-3,778
일본 부분	2,602	2.4	4,437	-4.6	-1,835
일본 비중	4.5		7.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2021년 9월	2022년 9월	증감률
수출(백만¥, %)	6,840,480	8,820,212	28.9
수입(백만¥, %)	7,477,334	10,914,496	46.0
수지(백만¥, %)	-636,854	-2,094,284	228.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4,325	-2,062	10,248	3,137	12,225	2,586
한국 부분(억¥)	8	71	-286	72	90	46
한국 비중(%)	0.1	-	-	2.3	0.7	1.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8월 8일, 9월 8일, 10월 11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9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9월	2022년9월	증감률		2021년9월	2022년9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89,800	337,638	276.0	전체	17,720	206,500	1065.3
방한 일본인	1,142	27,560	2313.3	방일 한국인	2,224	32,700	1370.3
일본인 비중	1.27	8.16		한국인 비중	12.55	15.84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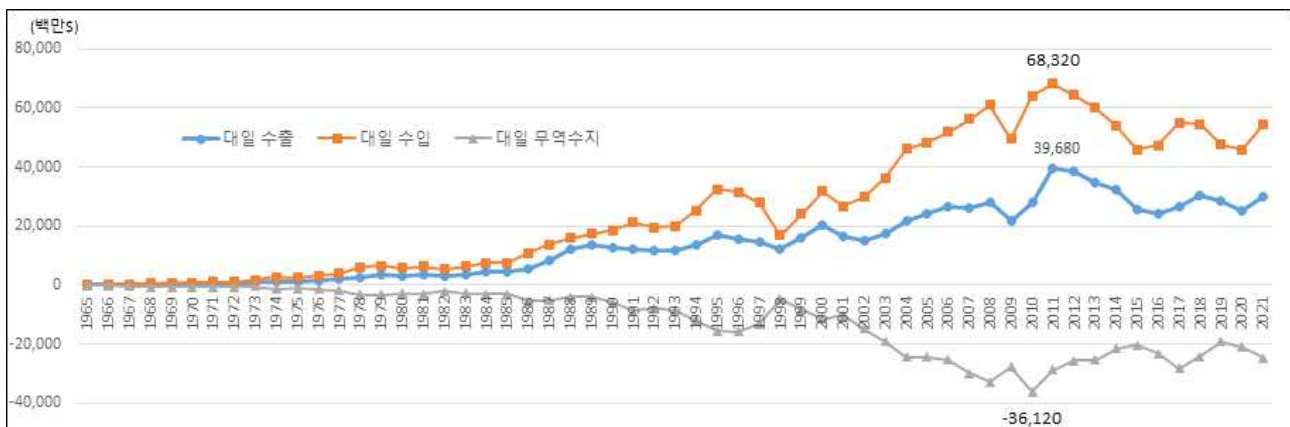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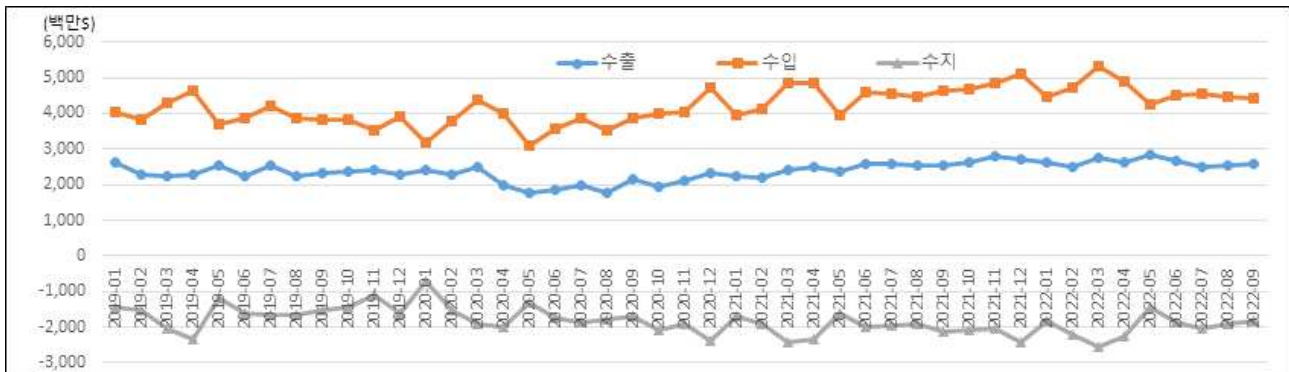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9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하였고 수입은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9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9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9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4.6% 감소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7,448	2.7	61,226	18.6	-3,778
일본 부분	2,602	2.4	4,437	-4.6	-1,835
일본 비중	4.5		7.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9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574.5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2.4% 증가하여 26.0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9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하여 612.3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4.6% 감소하여 44.4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9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37.8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18.4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9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7.2%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9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9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9월(백만\$, %)			2022년 9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541	17.8	-2,109	2,602	2.4	-1,835
1	광물성연료	376	68.0	318	402	6.9	329
2	정밀화학제품	216	12.4	-167	332	53.9	27
3	철강제품	384	43.1	-284	324	-15.7	-181
4	전자부품	171	25.6	-626	213	24.8	-873
5	석유화학제품	177	93.1	-133	161	-8.8	-72
6	산업용전자제품	141	0.3	-64	158	12.1	-73
7	농산물	95	3.5	77	98	3.3	76
8	생활용품	60	-15.1	-60	72	19.2	-44
9	수송기계	56	-25.9	-145	71	27.5	-102
10	기초산업기계	63	-4.4	-132	71	12.5	-148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9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9월(백만\$, %)			2022년 9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649	20.1	-2,109	4,437	-4.6	-1,835
1	전자부품	796	23.1	-626	1,086	36.4	-873
2	철강제품	668	87.6	-284	505	-24.3	-181
3	정밀기계	469	15.2	-411	436	-7.2	-374
4	정밀화학제품	382	17.7	-167	305	-20.2	27
5	석유화학제품	309	30.9	-133	233	-24.8	-72
6	산업용전자제품	205	0.1	-64	231	12.6	-73
7	기초산업기계	194	-1.2	-132	219	12.5	-148
8	수송기계	200	-9.0	-145	173	-13.6	-102
9	산업기계	176	2.7	-116	149	-15.3	-81
10	플라스틱제품	206	-7.8	-146	143	-30.9	-8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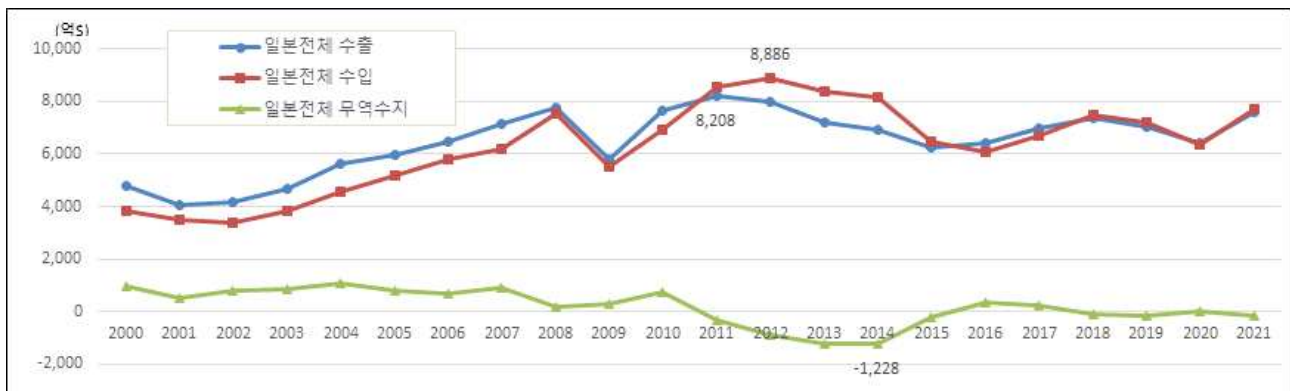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정밀화학제품(53.9%), 수송기계(27.5%), 전자부품(24.8%)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15.7%), 석유화학제품(-8.8%)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자부품(36.4%), 산업용전자제품(12.6%), 기초산업기계(12.5%)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플라스틱제품(-30.9%), 석유화학제품(-24.8%), 철강제품(-24.3%)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상황

	2021년 9월	2022년 9월	증감률
수출(백만¥, %)	6,840,480	8,820,212	28.9
수입(백만¥, %)	7,477,334	10,914,496	46.0
수지(백만¥, %)	-636,854	-2,094,284	228.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광물성연료, 반도체등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하여 8조 8,202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6.0% 증가하여 10조 9,14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월대비 228.8% 증가하여 2조 943억 엔이 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0%, 수입의 44.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619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수출의 19.6%, 수입의 21.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對中) 무역수지는 5,759억 엔 적자였음
 - 홍콩은 수출의 4.3%,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수지는 3,369억 엔 흑자였음
 - 대만은 수출의 6.4%,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수지는 1,103억 엔 흑자였음
 - 한국은 수출의 6.9%, 수입의 3.7%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한(對韓) 무역수지는 1,976억 엔 흑자였음
 - 미국은 수출의 19.0%, 수입의 9.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수지는 6,072억 엔 흑자였음
 - 서유럽 전체는 수출의 10.7%, 수입의 10.5%를 차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7%, 수입의 2.3%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5%, 수입의 0.7%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8,820,212	100.0	28.9	10,914,496	100.0	46.0	-2,094,284	228.8
아시아	4,938,645	56.0	20.6	4,876,755	44.7	38.5	61,890	-89.2
중국	1,732,112	19.6	17.1	2,308,007	21.1	30.1	-575,895	95.1
홍콩	377,610	4.3	8.4	10,709	0.1	14.7	366,901	8.2
대만	561,355	6.4	8.7	451,064	4.1	33.1	110,291	-37.9
대한민국	604,372	6.9	21.8	406,751	3.7	32.1	197,621	4.8
싱가포르	266,193	3.0	40.9	103,487	0.9	21.6	162,706	56.8
태국	378,952	4.3	23.8	298,339	2.7	22.6	80,613	28.7
말레이시아	205,690	2.3	43.7	361,705	3.3	147.2	-156,015	4763.7
인도네시아	180,295	2.0	26.7	319,579	2.9	70.9	-139,284	211.2
필리핀	152,921	1.7	34.7	124,229	1.1	26.7	28,692	85.6
베트남	226,979	2.6	34.9	304,333	2.8	55.9	-77,354	187.2
인도	173,432	2.0	42.2	69,360	0.6	28.6	104,072	53.0
대양주	276,134	3.1	82.1	1,325,855	12.1	118.8	-1,049,721	131.0
호주	218,236	2.5	101.7	1,207,772	11.1	121.8	-989,536	126.8
뉴질랜드	41,952	0.5	63.9	37,686	0.3	43.6	4,266	-
북미	1,776,742	20.1	45.8	1,245,047	11.4	35.9	531,695	76.0
미국	1,678,774	19.0	45.3	1,071,599	9.8	40.4	607,175	54.9
캐나다	97,968	1.1	55.0	172,507	1.6	13.1	-74,539	-16.6
중남미	345,156	3.9	21.1	406,496	3.7	14.5	-61,340	-12.5
서유럽	941,658	10.7	32.1	1,142,345	10.5	20.5	-200,687	-14.7
독일	236,657	2.7	17.1	251,027	2.3	8.9	-14,370	-49.4
영국	131,591	1.5	39.8	81,700	0.7	43.6	49,891	34.1
프랑스	73,482	0.8	42.6	100,502	0.9	-1.6	-27,020	-46.6
네덜란드	144,940	1.6	25.5	46,413	0.4	37.4	98,527	20.6
이탈리아	62,059	0.7	53.3	132,301	1.2	13.3	-70,242	-7.9
벨기에	72,122	0.8	7.4	130,692	1.2	66.1	-58,570	409.6
스위스	39,017	0.4	25.7	93,983	0.9	24.1	-54,966	23.0
스웨덴	17,819	0.2	90.4	34,689	0.3	23.4	-16,870	-10.1
아일랜드	19,358	0.2	111.2	63,039	0.6	13.6	-43,681	-5.7
스페인	38,275	0.4	130.1	84,527	0.8	18.1	-46,252	-15.9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69,894	1.9	9.9	218,678	2.0	3.3	-48,784	-14.5
중동	256,982	2.9	98.4	1,530,675	14.0	93.8	-1,273,693	92.9
아프리카	115,001	1.3	22.1	168,642	1.5	31.0	-53641	55.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모두 9개 품목 전부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86.7%), 수송용기기(75.0%), 기타(34.8%)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감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송용기기(11.5%), 기타(4.9%), 일반기계(4.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18.3%), 전기기기(38.3%), 기타(35.2%)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감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23.8%), 전기기기(6.1%), 기타(4.5%)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9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8,820,212	100.0	28.9	28.9	10,914,496	100.0	46.0	46.0
1 식료품	97,234	1.1	14.9	0.2	815,944	7.5	25.8	2.2
2 원료품	131,162	1.5	14.3	0.2	668,091	6.1	5.2	0.4
3 광물성연료	231,013	2.6	86.7	1.6	3,279,521	30.0	118.3	23.8
4 화학제품	957,485	10.9	4.9	0.6	1,260,094	11.5	34.7	4.3
5 원료별제품	974,146	11.0	10.0	1.3	859,175	7.9	20.8	2.0
6 일반기계	1,669,629	18.9	23.8	4.7	810,486	7.4	25.4	2.2
7 전기기기	1,615,084	18.3	19.6	3.9	1,653,489	15.1	38.3	6.1
8 수송용기기	1,836,669	20.8	75.0	11.5	281,633	2.6	11.8	0.4
9 기타	1,307,790	14.8	34.8	4.9	1,286,063	11.8	35.2	4.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10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4,325	-2,062	10,248	3,137	12,225	2,586
한국 부분(억¥)	8	71	-286	72	90	46
한국 비중(%)	0.1	-	-	2.3	0.7	1.8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8월 8일, 9월 8일, 10월 11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7월에 10,248억 엔에서 8월에 12,225억 엔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7월에 -286억 엔으로 마이너스였으나, 8월에 90억 엔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022년 8월에 0.7%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7월에 3,137억 엔에서 8월 2,586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7월에 72억 엔에서 8월에 46억 엔으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2022년 8월에 1.8%였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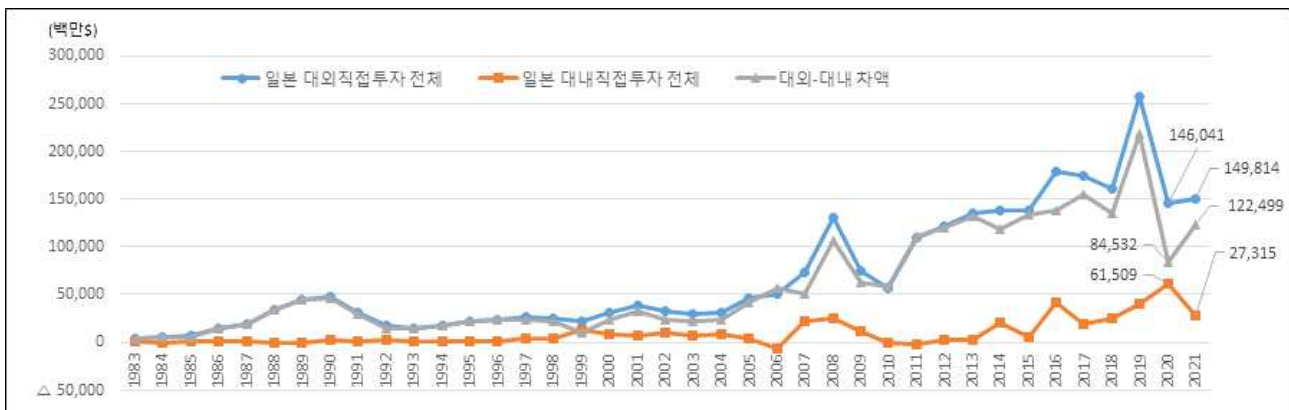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8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2,225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586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2,225억 엔(실행 49,432; 회수 37,207)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46.2%), 아시아(33.9%), 유럽(13.1%), 중남미(6.7%), 대양주(0.6%)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외직접투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5,740억 엔), 케이만제도(2,544억 엔) 등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586억 엔(실행 30,899; 회수 28,313)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유럽, 아시아, 중남미 경우는 플러스였고, 대양주, 북미 경우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를 많이 한 곳은 영국(1,668억 엔), 독일(764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8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49,432	37,207	12,225	100.0	30,899	28,313	2,586	100.0
아시아	10,564	6,415	4,149	33.9	4,981	4,257	723	28.0
중국	1,424	412	1,011	8.3	808	1,030	-222	-8.6
홍콩	914	796	118	1.0	741	756	-16	-0.6
대만	161	302	-141	-1.2	55	36	19	0.7
한국	112	21	90	0.7	71	25	46	1.8
싱가포르	5,905	4,194	1,711	14.0	2,925	2,196	729	28.2
태국	611	188	423	3.5	331	200	131	5.1
인도네시아	111	112	-1	0.0	28	—	28	1.1
말레이시아	437	157	280	2.3	17	13	4	0.2
필리핀	142	17	126	1.0	—	—	—	—
베트남	453	116	337	2.8	3	—	3	0.1
인도	180	32	149	1.2	-0	—	-0	0.0
북미	19,754	14,111	5,643	46.2	8,595	8,793	-197	-7.6
미국	19,391	13,651	5,740	47.0	8,566	8,792	-226	-8.7
캐나다	363	460	-97	-0.8	30	1	29	1.1
중남미	3,636	2,822	815	6.7	990	374	617	23.9
멕시코	420	162	258	2.1	4	—	4	0.2
브라질	67	66	0	0.0	—	—	—	—
케이만제도	2,559	15	2,544	20.8	901	332	568	22.0
대양주	199	123	77	0.6	1,117	2,103	-985	-38.1
호주	18	73	-55	-0.4	994	1967	-974	-37.7
뉴질랜드	128	36	92	0.8	1	0	0	0.0
유럽	14,437	12,833	1,603	13.1	15,214	12,784	2,430	94.0
독일	2,577	2,367	210	1.7	2,623	1,859	764	29.5
영국	3,887	3,287	599	4.9	7,371	5,703	1,668	64.5
프랑스	196	321	-125	-1.0	331	393	-62	-2.4
네덜란드	767	456	312	2.6	1,414	1,375	39	1.5
이탈리아	27	8	18	0.1	1,403	1,409	-6	-0.2
벨기에	2,270	2,098	173	1.4	485	582	-97	-3.8
룩셈부르크	2,356	2,131	225	1.8	80	51	29	1.1
스위스	240	172	68	0.6	863	1,168	-306	-11.8
스웨덴	80	3	77	0.6	18	20	-3	-0.1
스페인	17	3	15	0.1	132	133	-1	0.0
러시아	24	—	24	0.2	—	—	—	—
중동	55	118	-63	-0.5	2	3	-1	0.0
아프리카	786	785	1	0.0	0	—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0월 11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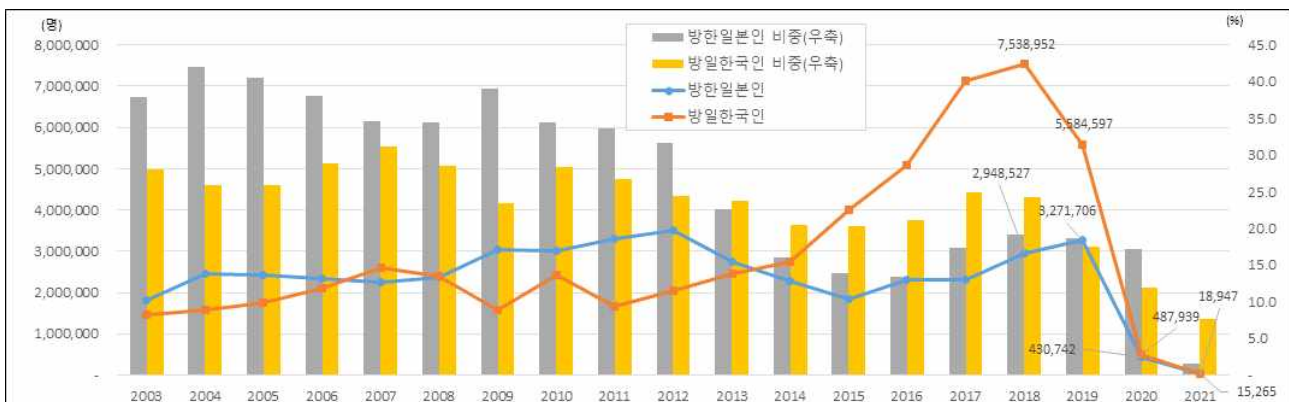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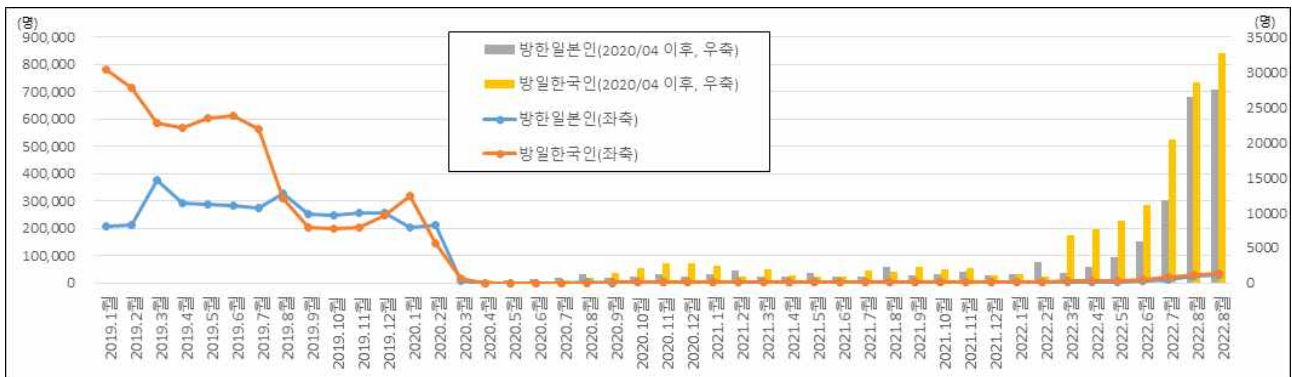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3월 이후로는 양쪽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4월 2,231명, 5월 3,701명, 6월 5,855명, 7월 11,789명, 8월 26,482명, 9월 27,560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최근 2022년 3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13명, 3월 6,694명, 4월 7,699명, 5월 8,805명, 6월 11,168명, 7월 20,384명, 8월 28,500명, 9월 32,7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9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9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9월	2022년9월	증감률		2021년9월	2022년9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89,800	337,638	276.0	전체	17,720	206,500	1065.3
방한 일본인	1,142	27,560	2313.3	방일 한국인	2,224	32,700	1370.3
일본인 비중	1.27	8.16		한국인 비중	12.55	15.84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9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337,63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6.0%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27,56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13.3%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9월 1.27%에서 2022년 9월 8.16%로 증가하였음
- 2022년 9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06,5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5.3%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32,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70.3%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9월 12.55%에서 2022년 9월 15.84%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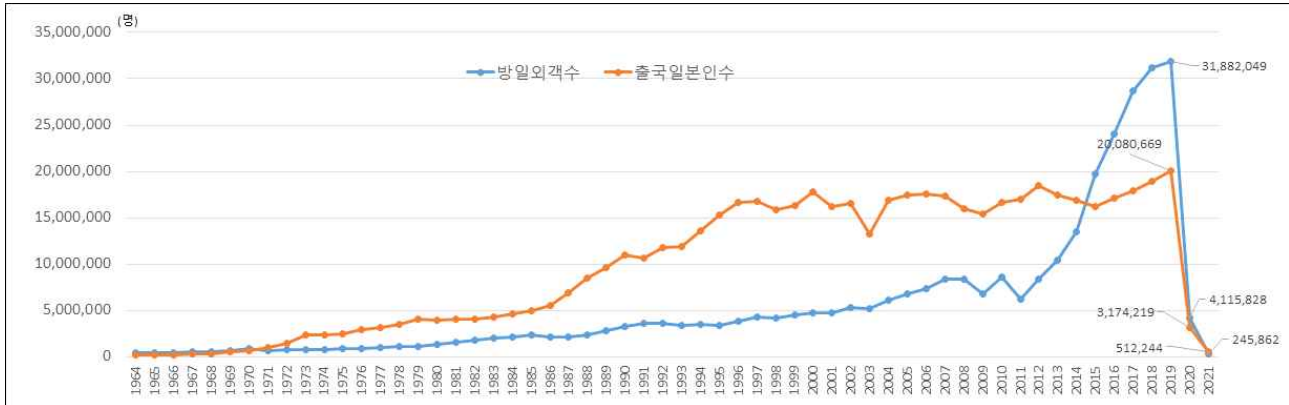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9월 상황

- <표10>은 2022년 9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9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206,500명으로 2019년동월(2,272,883명)대비 90.9% 감소하였고, 전년동월(17,720명)대비 1065.3%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32,700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370.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7,60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344.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6,70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617.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9,2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676.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인 수는 8,500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1827.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30,900명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953.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8,0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86.3%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9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272,883	100.0	17,720	100.0	206,500	100.0	-90.9	1065.3
한국	201,252	8.9	2,224	12.6	32,700	15.8	-83.8	1370.3
중국	819,054	36.0	3,960	22.3	17,600	8.5	-97.9	344.4
대만	376,186	16.6	390	2.2	6,700	3.2	-98.2	1617.9
홍콩	155,927	6.9	120	0.7	2,800	1.4	-98.2	2233.3
태국	62,057	2.7	153	0.9	7,600	3.7	-87.8	4867.3
싱가포르	29,147	1.3	70	0.4	2,900	1.4	-90.1	4042.9
말레이시아	28,778	1.3	231	1.3	3,000	1.5	-89.6	1198.7
인도네시아	25,021	1.1	518	2.9	9,200	4.5	-63.2	1676.1
필리핀	37,758	1.7	441	2.5	8,500	4.1	-77.5	1827.4
베트남	38,325	1.7	1,012	5.7	30,900	15.0	-19.4	2953.4
인도	15,895	0.7	493	2.8	5,200	2.5	-67.3	954.8
호주	60,498	2.7	121	0.7	4,700	2.3	-92.2	3784.3
미국	127,190	5.6	1,657	9.4	18,000	8.7	-85.8	986.3
캐나다	28,525	1.3	220	1.2	2,400	1.2	-91.6	990.9
멕시코	6,282	0.3	24	0.1	800	0.4	-87.3	3233.3
영국	49,580	2.2	277	1.6	4,500	2.2	-90.9	1524.5
프랑스	26,530	1.2	484	2.7	5,300	2.6	-80.0	995.0
독일	22,768	1.0	319	1.8	5,300	2.6	-76.7	1561.4
이탈리아	13,354	0.6	220	1.2	2,600	1.3	-80.5	1081.8
스페인	11,472	0.5	126	0.7	2,000	1.0	-82.6	1487.3
러시아	10,454	0.5	231	1.3	1,200	0.6	-88.5	419.5
중동지역	8,678	0.4	268	1.5	1,800	0.9	-79.3	571.6
기타	118,152	5.2	4,161	23.5	30,800	14.9	-73.9	640.2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10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0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1-3월	2022년 4-6월	2022년 7-9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6	1.7	0.6	1.6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2	0.0	-1.2		-1.2	-2.1	-1.9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3.2	4.4	-0.8		1.5	8.0	17.8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81.5	85.6	87.3	85.2		84.5	82.5	90.3	
증감률	-9.9	5.0	4.9	-1.3		-2.2	-5.4	4.6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6	-10.8	-8.7		-6.2	-12.0	6.7	
<수출입>									
수출수량	-11.7	12.2	-0.8	-3.1	P 0.2	-1.5	-1.9	-1.1	P 3.7
수입수량	-6.4	5.1	1.3	-1.1	P 1.0	1.3	2.2	P 2.8	P -1.8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6	-0.6	-3.7		-2.8	- 2.0	5.8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13.7	17.6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7,773	6,030	1,504	1,556	1,585	546	494	492	599
증감률	-7.2	-22.4	-3.2	4.4	9.5	0.9	3.7	5.5	18.6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7	2.6		2.6	2.6	2.5	
<물가>									
국내기업물가	-1.2	4.6	9.3	9.5	9.4	9.4	9.1	9.4	P 9.7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0	-0.2	0.9	2.4	2.9	2.4	2.6	3.0	3.0
<금융>									
넷케이평균주가(엔)	22,705	28,836	27,156	26,891	27,610	26,958	26,986	28,351	27,418
환율(엔/\$)	106.73	109.89	116.32	129.71	138.24	133.86	136.63	135.24	143.14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9월, 10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8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7%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8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3%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약세이며, 소비자 심리도 약세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여행 및 외식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이 진전되는 가운데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2년 4-6월기는 전기(前期)대비 3.9%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동(同) 7.6% 증가, 비제조업이 동(同) 1.9%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9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증가하는 경향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견조한 기업수익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이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임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총 호수는 8월에 전월대비 9.4% 증가인 연율 90.3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약세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바닥의 견고함이 증가하고 있음
 - 8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1% 증가, 9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3.2% 증가, 8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1.7% 증가하였음
 - 향후전망에 관해서는 관련예산의 집행에 따라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도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9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0.9%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8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상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8월에 전월대비 3.4%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9월은 전월대비 2.9% 증가, 10월은 전월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증가하고 있고, 전자 부품·디바이스는 최근 약세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기의 하향 등에 따른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기업 이익은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4-6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7.6% 증가, 전기대비 5.5%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8월 492건 이후 9월은 599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회복되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8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낮아져 2.5%로 됨
 - 노동력인구, 취업자수,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취업률은 회복되고 있고, 신규구인수, 유효구인배율 및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약세임
 - 일본은행 短觀(9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상승하고 있음
 - 9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하계전력요금 조정 후에도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상승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기조를 ‘국제운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9월에는 전월대비 0.2% 포인트 감소하여 94.0%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당분간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 후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6,200엔대에서 27,300엔대로 상승하였다가, 28,600엔대로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44엔대에서 143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50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6%대에서 -0.02%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는 대체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2.6%(9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3.3%(9월) 감소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3%(9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10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10월 25일)

- 현재의 높은 물가에 대한 대응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일본경제를 반드시 재생시킴
 - 이를 위해 ‘물가고 및 엔저에 대한 대응’, ‘구조적 임금 상승’,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을 중점 분야로 두고, 세계경제의 감속 리스크를 충분히 시야에 두면서, 경제정세의 변화에 끊임없이 대응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종합 경제대책을 책정함
 - 그 대응책이 되는 보정예산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 성립에 전력을 다해 노력함
- 금후에도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재정 운영의 틀을 견지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경제상황 등을 주시하고, 주저 없이 기동적인 거시 경제 운영을 실행해 나감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 소비자 심리 및 노동 인구 관련 동향

- 소비자 심리 악화 및 유효구인배율의 상승
 - 일본의 10월 소비자 심리는 위축되었으나, 유효구인배율은 숙박서비스나 음식서비스의 성장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일본 내각부가 10월 31일 발표한 10월 소비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태도지수가 9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엔저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된 소비자 심리 악화 때문으로 보임
 - 물가 상승폭에 대한 전망으로는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 후생노동성이 10월 28일 발표한 9월 유효구인배율(계절 조정치)은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효구인배율은 전국의 헬로워크(일본의 공공직업안내소)에서 일을 찾는 사람 1명당 몇 개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직업을 얻기 쉬운 상황이 됨
 -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규 구인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서비스의 성장이 컸음
 - 취업자 수의 경우는 6,76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만 명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음
- 기업의 정년 상황 및 외국인 노동자의 공적 통계 신설
 -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고용 연장 및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이 10월 28일 공표한 2022년 취업조건 종합조사를 실시하였음
 - 취업조건 종합조사는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년제의 경우 5년에 1번 조사한다고 함
 - 조사에 의하면 종업원에게 일률적인 정년제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 중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비율이 24.5%로 2005년 조사를 개시한 이래 가장 높았음
 - 정년 후에도 희망하면 66세 이상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 기업은

31.7%, 정년퇴직 이후 66세 이상 인원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은 22.0%로 모두 과거 최고치를 갱신했음

- 후생노동성은 10월 27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통계를 2023년도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1년 10월 말 시점으로 약 173만 명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2.10.27., 2022.10.28., 2022.10.31.)

□ 일본 정부의 공급망 강화 방안

○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공급망 강화

- 일본 정부는 10월 13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특정 중요물자 대상 분야의 안(案)을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에서 제시했음
- 특정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는 경제안보법의 4개 기둥 중 하나임
- 이러한 공급망 강화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자의 공급 네트워크가 비상 상태에도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가 지정한 특정중요물자 분야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산업성 소관에서는 반도체, 클라우드, 축전지, 액화천연가스 등 8개 분야, 국토교통성 소관에서는 선박관련 기기, 후생노동성에서는 항균약, 농림수산성의 비료 원료 등이 이에 속함
- 특히, 비료의 경우에는 식량자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비료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부와 국토교통성은 10월 17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비료 이용 확대를 위한 관민검토회를 시작했음
- 하수 슬러지는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비료로 이용되는 것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하수 슬러지에서는 비료의 원료인 인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인은 해외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산이 70% 이상을 차지함
-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지연과 비료 원료 가격 급등 등의 상황에서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비료를 확보하는 체제를 갖추어 농업관리 및 식량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및 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고 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2.10.13., 2022.10.17.)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기업 간 협력 방안

○ 탈탄소 및 자원 조달 측면에서의 기업 간 협력

- 신기술 개발과 탈탄소화를 위한 자본투자에는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경쟁사와의 공동 노력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업들이 협력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음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탈탄소화를 향한 기업 간 협업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입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쟁사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장비 공유를 염두에 두고 독점금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함
- 한편, 경제산업성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정과 기업에 전기 절약을 요청할 계획임
- LNG 조달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전력회사와 도시가스회사 간에 LNG를 융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LNG 부족 기업은 경제산업성이 중개역이 되어 융통 가능한 기업을 소개함
- 또한, 기업과 가정이 일정 수준의 전기 절약을 달성할 경우,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한 지원 조치도 취할 예정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2.10.12., 2022.10.17.)

□ 일본 제조업체 동향

○ 자율주행 소형 모빌리티 개발 및 일본 제조업체 동향

- 쿠루메공업대(久留米工業大)와 인재서비스 회사인 PERSOL(パーソル)그룹은 AI를 탑재한 관광용 자율주행 소형 모빌리티를 개발했음
- 공원의 벤치를 이미지로 하여 개발한 2~3인승으로 지자체에서 COVID-19 이후 관광의 촉매제로 고려되고 있음

- 또한, 파나소닉홀딩스도 박물관에서 전동 휠체어의 자율주행과 VR을 조합한 실증 실험을 하는 등 자율주행을 관광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한편, 파나소닉홀딩스가 10월 31일 발표한 2022년 9월 중간 연결 결산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4조 639억 엔, 최종 이익은 29.9% 감소한 1,073억 엔이었음
 - 엔저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의 가전이나 자동차 생산의 견조한 회복도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음
 - 반면에 EV용 차내 배터리 생산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와 원자재 및 물류비 급등으로 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파나소닉홀딩스는 10월 31일 미국 중서부 캔자스 주에서 계획하는 EV용 차재 전지 공장의 건설을 11월에 시작한다고 정식 발표하였음
- 구독 서비스를 통한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강화 노력
-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파나소닉홀딩스는 작년부터 시작한 조리가전과 식재료키트의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파나소닉은 지난해 6월 시작한 구독 서비스인 ‘foodable’을 충실히 하며, 새롭게 4개의 코스를 추가하기로 하였음
 - 해당 서비스는 오븐 레인지나 밥솥 등 파나소닉의 고급 가전과 전용 식재료키트가 세트가 된 서비스로 이번에 신설한 4개의 코스 중에는 건강한 장내(腸內)활동과 저탄수화물 등 건강을 배려한 코스도 마련하였음
 - 한편, 샤프도 올해 2월부터 자사의 조리 가전 전용 식재료 키트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히타치는 11월 중순부터 가전제품 구독을 시작할 예정으로 로봇청소기, 스틱청소기, 오븐레인지, 밥솥의 4가지 제품이 우선 대상이 됨
 - 드롱기재팬의 경우에도 원두를 정기 구입할 경우 전자동 커피머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전개해왔음
- (출처: 산케이신문, 2022.10.27., 2022.10.29., 2022.10.31.)